

영국시민 맞춤형 AI 활용 한국문화유산 소개 주영한국문화원 특별전 <영화미소: AI와 문화유산 >개막

-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실감형 영상 영국 내 최초 소개
- 영국에서 신설 K-Art Lab 감은사, 청자에 담긴 세상 VR체험
- K-컬처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미래형 디지털 전시

-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은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력으로 마련된 몰입형 미디어 전시 《영화미소: 인공지능과 문화유산 (Endless Bonds: AI and Korean Heritage)》(7.17-8.22)을 오는 7월 17일 개막한다. K-컬처의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의 교두보인 영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공공향유형’ 실감콘텐츠를 전격적으로 소개한다.
- 주영한국문화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에 더하여, 영국에서 AI를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유산을 영국식 맞춤형 해설로 전세계 K-컬처 팬들을 위한 맞춤형 해설을 제공하는 실험적 전시다. 문화예술에서 인간과 AI의 관계를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정서적 관계의 확장 가능성을 실험한다.
-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21세기 문화강국을 향해 K-컬처의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AI를 통해 다양하게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국문화는 빠른 실용과 활용의 순발력과 민첩성에 탁월합니다.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창의력이 바로 새로운 미래의 황금열쇠가 될 것입니다.”라고 전시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디지털데이터와 문화재조사를 결합하여 미술사학자와 AI가 재기발랄한 대화로 오류를 줄여가면서 영국시민들에게 한국문화유산의 깊은 매력을 맞춤형으로 소

개합니다. 향후 전 세계 영어 사용자로 문화향유대상을 확대하여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을 앞당기고자 합니다.”라고 특별전의 장점을 강조했다.

□ 특별전 <염화미소: AI 와 문화유산>은 크게 3부로 ‘염화미소’, ‘불립문자’, ‘이심전심’으로 구성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개발한 디지털 실감 영상과 VR이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최초로 상영된다.

○ 1부 ‘염화미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형 영상 중 정조의 화성행차를 생생하게 구현한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 하다’와 ‘금강산에 오르다’를 영국에서 최초로 상영한다.

○ 특별전과 동시에 주영한국문화원에 신설하는 K-Art Lab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협력으로 공공향유콘텐츠 VR 『감은사 사리장엄구』와 『청자에 담긴 세상』을 영국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불교미술과 고려청자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능동적인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VR 360도 콘텐츠는 왕의 행차, 강산무진, 금강산 등을 VR 콘텐츠로 감상할 수 있다.

□ 2부 ‘불립문자’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보물의 디지털 이미지를 ‘공공누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로 활용하여 미술사학과 AI의 거대언어모델이 상호 대화를 통해 오류(환각)를 줄여가면서 영국 시민들에게 맞춤형 해설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객서비스를 시도한다.

○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대표 유물인 국보 금관총의 금관을 다양한 이미지로 소개하며, 그 문화사적 가치를 세계 시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관 대형 도록과 함께, 미술사학과 인공지능(AI) 거대언어모델이 협업하여 영국 시민의 문화적 맥락에 맞춘 해설을 만들어가는 대화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 과정은 영국의 왕관, 특히 영국박물관에 소장된 왕관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며, 관람객들이 동서 문화유산의 공통성과 차이를 감성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실감형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 하다’의 원형이 되는 《화성능행도》는 1748년부터 영국에서 군주의 탄신을 기념해 열리는 트루핑 더 컬러(왕실군대사열식, Trooping the Colour)와 비교 설명을 제공한다.

○ ‘금강산에 오르다’는 금강산을 소재로 한 조선시대 회화작품들은 18세기 영국에서 ‘그림같은 풍경여행(Picturesque Travel)’이라는 예술 여행 개념과 연결하여 해설한다. 자연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숭고한 자연 풍경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올리도록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선과 영국의 J.M.W. 터너(William Turner)를 연상하도록 한다.

□ 3부 ‘이심전심’에서는 영국 내 소장되어 있는 한국문화재의 데이터수집 프로젝트로서 주요기관 7개소의 한국관련 소장품을 디지털 이미지로 소개한다. 올해는 영국박물관, 영국도서관, 국립아카이브,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 옥스퍼드대학 보들리안도서관, 캠브리지대학 피츠윌리엄박물관과 캠브리지대학 도서관 등 영국의 대표적 박물관과 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여 디지털 문화유산 맵핑 데이터를 구축한다.

○ 영국 주요 기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를 조사한 성과로서 △ 영국박물관 <채제공초상화>, △ 영국도서관의 <기사진표리진사의궤>, <옥계사>, 『홍길동전』, △ V&A 의 <혼례복 자수> △국립아카이브 <조영수호통상조약> 영국보관본, △ 옥스퍼드대학 보들리안도서관의 영조의 장례 행렬을 그린 그림(국장도감의궤반차도), <세계지도>, 『하다』, △ 캠브리지대학 피츠윌리엄박물관의 고려청자, △ 캠브리지대학 도서관의 방각본 한글소설 『정수정전』, 『임장군전』, 『조웅전』 등

을 디지털 이미지로 소개한다.

○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유산도 함께 공개된다. 영국도서관의 옥계사 필사본 등이 포함되어 한국과 영국의 오래되고 긴밀한 관계와 한국 문헌의 사상적 깊이를 소개한다.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코너>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출간한 영어도록을 소개한다. 생성형 AI가 일으킬 수 있는 오류들을 연구자들의 축적된 성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차재민 주영한국문화원 전시 담당자는 “유물과 장소, 사람과 과학을 연결하며 감각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시대를 초월한 한국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 박강인 콘텐츠 담당자는 “K-Art Lab은 시대와 기술 변화에 발맞춘 다채로운 한국 문화예술 경험을 제안하는 플랫폼으로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첨단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콘텐츠로서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한국 문화의 창조적 역량과 국격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과 영국 간의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전시 연계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1. <엄화미소: 인공지능과 문화유산> 전시개요

붙임 2. <엄화미소: 인공지능과 문화유산> 전시 포스터

담당 부서	주영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44)020 7004 2600
		담당자	실무관	차재민 (+44)020 7004 2606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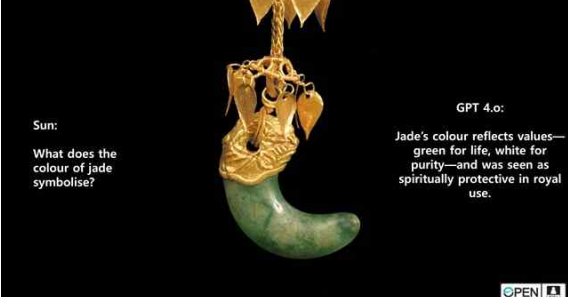
<염화미소: 인공지능과 문화유산> 전시개요

□ 전시개요

- (전시제목) 염화미소: 인공지능과 문화유산
 - Endless Bonds: AI and Korean Heritage
- (일시/장소) ‘25.7.17.(목) ~ 8.22.(금) /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 개막행사: ‘25.7.17.(목) 18:00-20:00 / 주영한국문화원 로비
- (전시주제) 인공지능과 문화유산의 공진화를 실험하는 전시
 - 국립중앙박물관 보유 디지털 실감형 콘텐츠 및 한국 유물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전시
- (전시구성)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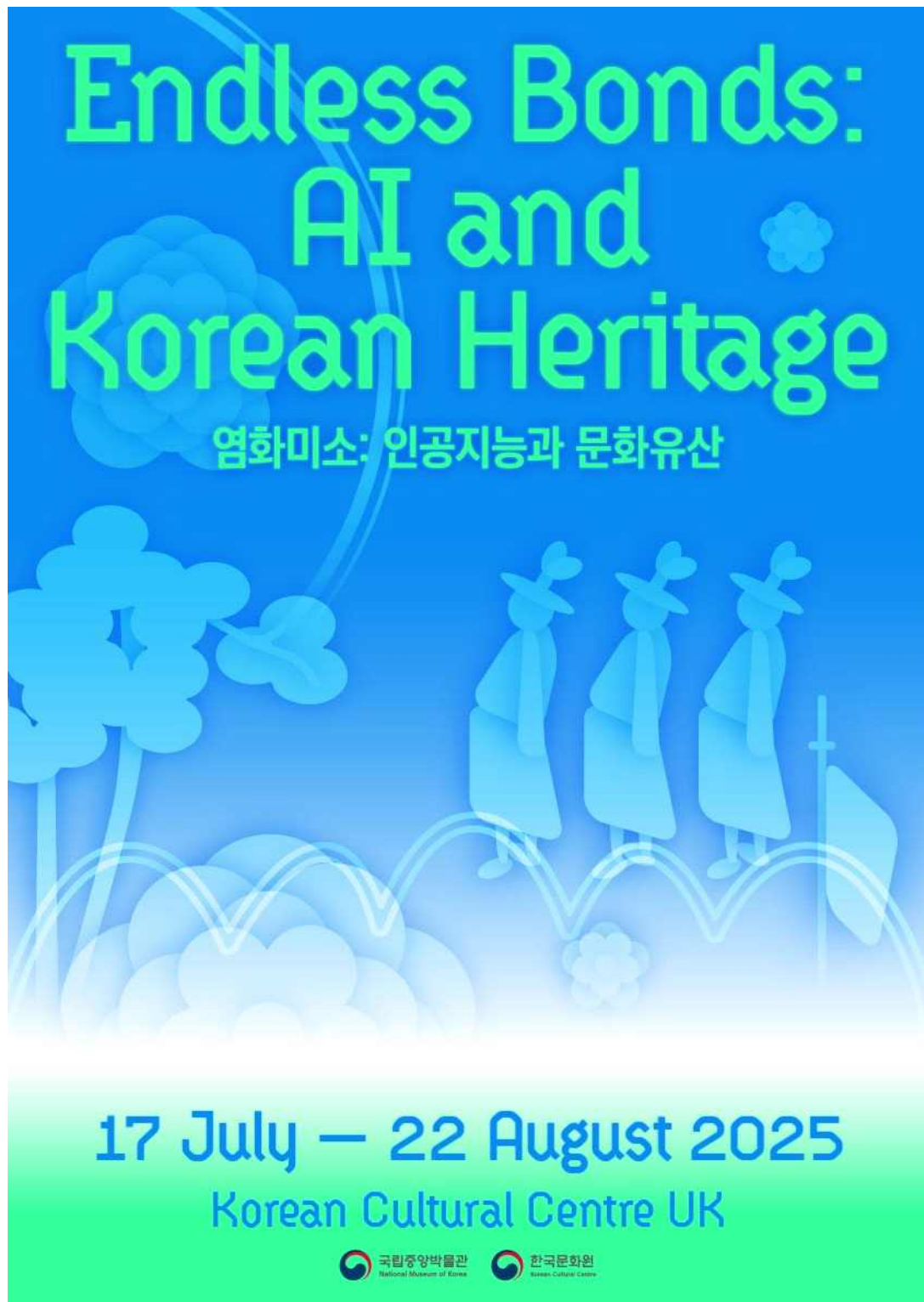
	1부	2부	3부
소제목	<염화미소> 마음에서 마음으로	<불립문자> 한국 국보의 아름다움	<이심전심> 서로 이어지다
주제	‘왕의 행차’와 ‘강산무진도’ 소개 이상적인 세상의 구현을 정치적, 문화적, 철학적 메시지를 통해 전달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의 AI 맞춤형 해설 * APEC 경주 개최와 연계하여 신라 관련 콘텐츠 중심	영국 내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
주요 전시물	1)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2) 강산에 펼친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1)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국보 디지털 이미지와 AI 해설 2) 국립중앙박물관 영문 도록 3) 경주 관련 영상	1) 영국의 주요문화기관 영국박물관 영국도서관 옥스퍼드대학 캠브리지대학 소장 한국 문화재 디지털 이미지

○ (주요전시물)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전시품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정조(正祖)의 화성행차. 기록화 속 등장인물을 3D로 구현하였으며, 궁중 무용은 모션 캡처 기술로 무형문화유산 전수자들의 춤사위를 입혔다. 새벽 창덕궁을 출발해 화성의 불꽃놀이까지,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자 했던 정조의 뜻을 따라가 본다.
	<금강산에 오르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정선(鄭敼)의 신묘년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 등 금강산을 소재로 한 조선 후기 실경산수를 소재로 함. 계절의 변화 속에 구룡폭포, 장안사, 삼불암 등 금강산의 절경을 표현하고 있음.
 Gold crown from Geumgwanchong Tomb Silla period National Museum of Korea, Gyeongju In Dialogue: Seunghye Sun and ChatGPT 1st July 2025 OPEN AI	<금관총 금관- AI와 대화> (공공누리활용) 금관총 금관에 대해 미술사학자와 거대언어모델이 대화를 통해 상징성을 탐구. 1921년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금관총에서 발견된 금관으로 얇은 금판을 오려서 만든 테두리 위에 출자형 입식을 세우고 장식했다.
 Sun: What does the colour of jade symbolise? GPT 4.o: Jade's colour reflects values—green for life, white for purity—and was seen as spiritually protective in royal use. OPEN AI	<금관총 금관- AI와 대화>(공공누리활용) 금관총 금관에는 곡옥이 장식되어 있다. 곡옥의 색의 의미에 대한 AI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붙임2

〈염화미소: 인공지능과 문화유산〉 포스터



붙임3

<영화미소: 인공지능과 문화유산> 주요전시물

○ (주요전시물) 영국 소장 한국문화재 데이터



기사진표리진찬의궤 디지털 이미지

(영국도서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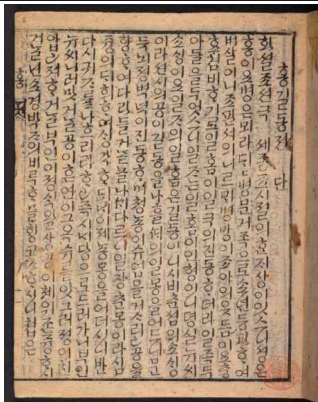
조선의 23대 임금인 순조(재위 1800~1834)가 1809년 할머니인 혜경궁의 관례(冠禮, 전통사회에 성인 의식)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창경궁에서 개최한 진표리(옷감을 바치는 일)와 진찬(궁중 잔치)을 표현하고 있다. 궁중음악의 복원 및 재현에 중요한 자료이며, 국립국악원에서 영국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옥계사 디지털 이미지

(영국도서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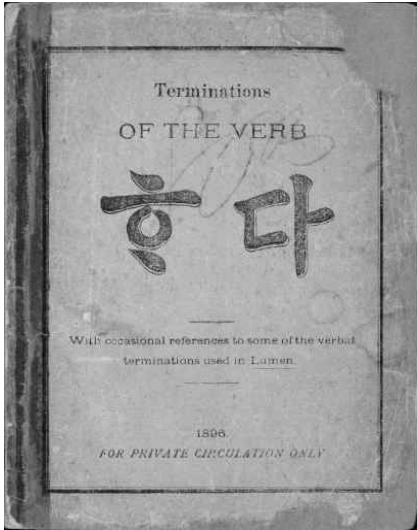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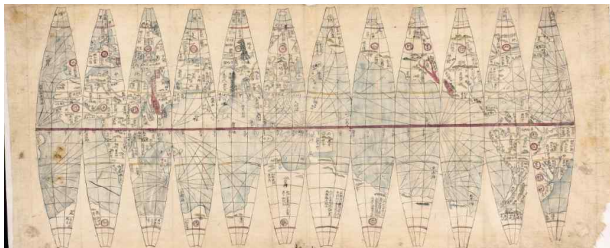
조선 후기 문인들이 결성한 문학 모임인 "옥계사(Jade Stream Club)"의 시화첩으로, 약 1791년경 제작된 필사본이다. 주로 인왕산의 풍광과 회원들이 지은 시와 그림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 지식인들의 교류와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홍길동전 디지털 이미지

(영국도서관 제공)

조선 후기 소설로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의 한글본이다. 홍길동이 부당한 신분 질서를 극복하고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이야기

	를 담고 있으며, 조선 후기 문학과 사상,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다(하ㄷ) 동사의 어미 변화 디지털 이미지 (옥스퍼드 대학 보들리안 도서관) CC BY-NC 4.0 1896년에 제작된 한국어의 대표 동사 '하다'의 다양한 활용형과 종결어미를 정리한 필사본 문헌으로, 국어 문법의 구조와 활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희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계에 단 하나뿐인 현존 유일본으로, 한국어 동사 어미 연구에 있어 서양에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세계지도 디지털 이미지 (옥스퍼드 대학 보들리안 도서관) CC BY-NC 4.0 18세기 한국 제작 세계지도, 정확히는 용고양계여동천도 (Yonggyo yanggye Yodong chondo)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각 지역을 고안의 형태로 표현한 희귀한 필사본 지도이다. 돔 구조처럼 펼쳐진 12장의 고각 다이어그램(gores)이 하나의 장에 수록된 유형으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한국산 세계지도 사본으로 알려져 있다. 18세기 조선의 세계관과 지리학적 이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채제공 초상 디지털 이미지 (영국박물관 제공)



이 초상화는 정조 시대 최고 관직을 지낸 실학 정치가 채제공을 묘사한 공식 초상으로, 조선 후기 초상화의 미학과 역사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당시 궁중 화가였던 이명기의 작품으로 여겨지며 당시의 궁중 화풍과 정교한 인물 묘사법을 보여준다.